

한국 음악교육사 — 빈칸 문제 [정답지]

빨강 글씨가 정답, 밑줄 아래 () 안 작은 글씨는 칸 안내, 회색 글씨는 힌트입니다.

① 상고시대 · 고대

1. 상고시대의 음악 문화는 제천의식(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농사·목축 등의 풍요를 기원한 굿 형태의 종교의식이 국가적 규모의 행사였다.
2. 중국 진수의 『삼국지』(문헌명) 위지 동이전에 부여의 영고(제천의식), 고구려의 동맹(제천의식), 동예의 무천(제천의식)과 같은 제천의식 기록이 있으며, 악·가·무의 예술 형태로 음악 활동과 밀접하였다.
3. 골제적, 청동방울, 현악기 고(악기명) 등이 여러 지역 유적에서 발견된다.

② 삼국시대 · 고대

■ 문헌 자료

1. 고려시대 문헌인 『삼국사기』(문헌명) 악지에는 “진나라에서 보내온 칠현금(악기명)을 왕산악이 개조하여 100여 곡을 작곡함. 검은 학(玄鶴)이 날아와 춤을 추어 현학금(악기명)이라 함”이라 기록되어 있다.
2. 『일본서기』(문헌명)(8세기(편찬 세기))에 편찬 (720년) 권19에 의하면 백제는 중국 남조 문화를 수용하여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로 높은 수준의 음악을 발전시켰다.
3. 『일본서기』(문헌명)에는 중국 오나라에서 기악무(춤(가면극)명)를 배운 미마지가 일본 사찰을 중심으로 춤과 음악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다(지금의 양주 별산대놀이에서 흔적 발견).
4. 『일본후기』(문헌명)에는 백제 악사 4인(삼근, 기마차, 진노, 진타)이 일본 왕립음악기관인 <가가쿠료(일본 음악기관)>에서 횡적·군후·막목·춤을 가르쳤다고 전한다.

■ 가야금과 우륵

1. 『삼국사기』(문헌명) 악지에 따르면 가야국의 가실왕(인물)이 당나라 악기인 쟁(악기명)을 모방하여 가야금(악기명)을 6세기(시기(세기))에 제작하였다.
2. 가야의 악사 우륵(인물)은 진흥왕(왕) 때(551년(시기)) 가야금을 들고 신라로 제자 이문(제자명)과 함께 망명하였다.
3. 우륵은 계고(제자명)에게 가야금, 법지(제자명)에게 노래, 만덕(제자명)에게 춤을 가르쳤다. — 이 기록의

출처는 『삼국사기(문헌명)』 악지 (우륵의 망명·교습 기록)이다.

4. 세 사람은 우륵이 작곡한 12(곡 수)곡을 배웠는데, “번차음(시끄럽고 번거로움)하니 아정하지 못하다” 하여 5(곡 수)곡으로 줄였다.

5. 가야금은 노래·춤과 함께 궁중 연향악(궁중 음악의 종류)으로 발전하였다.

■ 거문고의 전수 · 음악 기관

1. 『삼국사기(문헌명)』 악지에 전하는 신라 거문고 전수 계보: 옥보고(인물) → 속명득(인물) → 귀금선생(인물) → 안장(인물)·청장(인물) → 극중(인물)이 이어받았다.

2.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기관은 <음성서(기관명), 7(세기)C>로 연주·악공 선발·행정·교육을 담당하였다.景德왕 때 <대악감(기관명)>으로, 혜공왕 때 다시 <음성서(기관명)>로 바뀌었다.

3. 통일신라는 백제·당나라·서역 음악까지 수용하면서 우리 고유의 음악인 향악(음악 갈래)을 발전시켰다.

③ 고려시대 · 중세

1. 고려 음악은 통일신라에서 전한 향악(갈래), 송나라에서 수입한 당악(갈래), 의식음악인 아악(갈래)의 세 갈래로 나누어 발전하였다.

2. 『고려사』 악지(정인지(저자), 1451년(시기))에 따르면, 궁중 의식과 국왕 행차에는 고취악(음악 갈래)을 연주하였다.

3. 탈놀이(가면극)의 한 형태로, 가면을 쓰고 하는 무언 가면극인 기악(가면극(무언극))과 여러 잡다한 놀이인 잡희(잡다한 놀이)가 공연 예술로 널리 성행하였다.

■ 음악 기관

1. <대악서(기관명)>는 고려시대에 제일 먼저 설립된 왕립 음악기관(목종(왕), 10세기(시기))으로 궁중의식의 모든 음악 활동을 관장하였다.

2. <관현방(기관명), 문종 30년(왕·재위년), 1076년(시기)>은 악사와 악공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3. <관현방> 소속 악사들은 악공에게 향악(갈래)을 가르쳤고, 당무 겸 창사 업사는 당악정재(정재명)와 창사(노랫말)(唱詞)를 교방 여기들에게 가르쳤다.

4. <아악서(기관명)>는 공양왕(왕) 3년(1391년(시기)) 관현방이 폐지되면서 설립되었다.

④ 조선 전기 · 중세

1. 조선 초기 음악기관으로 아악서(기관명), 전악서(기관명), 봉상시(기관명), 관습도감(기관명), 악학(기관명)을 두었다.
2. 아악서(기관명)는 태조 원년에 설립되어 종묘제향(담당)을 연주하기 위해, 전악서(기관명)는 손님을 접대하는 연향악(음악)을 연주하는 곳이었다.
3. 악공은 재랑(악공 구분)(좌방-등가의 노래)과 무공(악공 구분)(우방-문무·무무)으로 구분되었다.
4. 관습도감(기관명)은 향악과 당악의 습악을 맡았고, 악학(기관명)은 악서 편찬·음악이론·역사 연구와 악공 선발(취재)을 담당하였다.
5. <악학>과 <관습도감>이 통합되어 악학도감(기관명)(15세기(시기))이 되었고, 전악서와 아악서를 합쳐 만든 장악서(기관명)는 세조 12년에 통합되었다.

■ 음악기관 변천 — 연도 채우기

1392	태조 — 아악서·전악서·관습도감·봉상시 체제 성립
1466	세조 12년 — <u>장악서</u> (기관명)로 통합
1470	성종 — <u>장악원</u> (기관명)
1925	이왕직아악부
1946	구황궁아악부
1951	<u>국립국악원</u> (기관명)

⑤ 조선 후기 · 근세

1. 서민들 사이에서 민속악은 스승이 직접 소리로 전하고 마음으로 익히는 구전심수(전수(교육) 방법)(口傳心授) 방법으로 전해지며 수준 높은 음악으로 발전하였다.
2. 개화기 이전 음악교육은 개인 교습 형태의 '전문 교육(교육 구분)'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반 교육(교육 구분)'으로 구분된다.

⑥ 개화기 · 근대 · 연도 중심

※ ※ 이 시기부터는 연도가 핵심입니다. 왼쪽 칸에 연도를 씁니다.

18세기 전반	연행사들이 중국 북경 <u>천주당</u> 에서 서양음악을 처음 접함
1780년	연암 <u>박지원</u> (인물)이 청 사절로 다녀옴 → 『 <u>열하일기</u> (문헌명)』에 풍금 등 서

	양음악 접축을 최초 소개
1830년대	<u>이규경</u> (인물)이 『 <u>오주연문장전산고</u> (문헌명)』에 서양음악의 초보적 이론을 소개
1880년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서양 문화가 유입되며 근대화된 교육체제 를 갖추게 됨
1884년	<u>갑신정변</u> (사건) <u>김옥균</u> 등 급진개화파가 <u>우정충국 개국식</u> 에서 일으킨 정변 이후 별기군의 군악대가 곡호대로 개편
1886년	기독교계 학교에서 <u>창가</u> (교과목)를 가르치기 시작
1901년	독일인 <u>에케르트</u> (인물)가 양악대 창단 · 최초로 < <u>대한제국 애국가</u> (곡명)>를 작곡
1910년	' <u>이왕직 양악대</u> (단체명)'로 개칭 (이후 경성악대로 이어지다 해산)

■ 사립학교 설립 — 연도와 학교명

※ ※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사립학교. 오른쪽 설립자를 단서로 학교명을, 왼쪽에 설립 연도를 씁니다.

1885년	<u>배재학당</u> (학교명) 설립 (아펜젤러) <i>설립 1885 / 교명 하사 1886</i>
1886년	<u>이화학당</u> (학교명) 설립 (스크랜턴)
1886년	<u>경신학교</u> (학교명) 설립 (언더우드)

1. 이들 사립학교의 교육과정에 창가(교과목)가 포함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식 음악교육기관(의의(효시))의 효시가 되었다.
2. 창가의 발전 단계: (1) 찬송가(1단계) 단계 → (2) 애국적 가사를 창가로 노래한 단계 → (3) 일반적 가사로 진전한 단계 → (4) 복잡한 구조의 예술음악·대중음악으로 발전한 단계.

⑦ 20세기 전반 · 일제강점기 · 연도 중심

1906년	보통학교에 창가, 고등학교에 음악 과목 포함 → 공식적 서양음악 교육의 시작 (일본 내정간섭 심화)
1909년	음악교과가 <u>필수</u> (구분) 과목이 됨 ·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음악 교육단체인 <u>조양구락부</u> (단체명) <i>뒤에 조선정악전습소로 발전</i> 결성
1910년 5월	대한제국 학부가 최초의 관찬(官撰) 창가집인 『 <u>보통교육창가집</u> (문헌명)』 <i>학부 편찬·발행</i> 을 발행하며 음악교육 본격화
1911년	<u>조선정악전습소</u> (기관명)(조양구락부 발전) · 조선총독부 '보통학교규칙'에 창가 포함 · 제1차 조선교육령

1922년	교수요지 — 창가가 모든 학교에서 필수로 부과 · ' <u>미적인 감각</u> _(목적) 을 기르는 것'을 목적에 추가
1938년	교수요지 — 황국식민화·우민화, 일본에 대한 애국심·복종심 강조
1939년	이후 모든 노래를 <u>일본어</u> _(언어) 가사로 작곡
1943년	교수요지 — 교과 이름 '창가' → ' <u>음악</u> _(교과명) '으로 변경
1945년	<u>광복</u> _(사건) — 이후 미군 정기에는 음악 교사 양성
1946년	<u>경성음악학교</u> _(기관명)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과를 통해 음악인·음악 교사 배출

※ ※ 일제 통치의 슬픈 운명에 관한 노래: <봉선화_(곡명)>

⑧ 20세기 후반 · 현대 · 연도 중심

1950년대	음악교육에서 가장 중시된 것은 <u>음악적 기초능력</u> _(중점) — 기악보다 <u>가창</u> _(영역) 이 주를 이룸
1956년	<u>현제명</u> _(인물) 이 미국 MENC 학술대회 참여 후 <u>한국음악교육연구회</u> _(학회명) 조직
1963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음악교육 전공 개설
1970년대	미국 음악교육의 영향 — <u>개념적 접근법</u> _(이론) , 포괄적 음악교육 등 소개
1975년	' <u>국악 교육 연구회</u> _(단체명) ' 출범 → 국악 교육도 점차 변화
1978년	한국음악교육연구회 → <u>한국음악교육학회</u> _(학회명) 로 개칭
1980년대	미국 중심의 다양한 음악교육이론 유입 — 심미적 음악교육론, <u>MMCP</u> _(이론) 등
2000년대	전국 교육대학 대학원에서 음악교육 전공 교사 배출 시작

※ ※ 6차·7차 교육과정에서 외국 이론(실천주의·구성주의·다문화주의 음악교육론 등) 대폭 수용.
STEAM(융합 교육):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의 5개 분야 통합.